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3차 실연심의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3월 28일(토) ~ 3월 29일(일)
- 회의장소 :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준영, 신보현, 이희경, 임종우, 임기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지원사업은 한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과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사업입니다. 올해 음악 분야에서는 총 23건의 지원서가 접수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5건이 실연심의 대상으로 추려졌습니다. 지난 3월 28일과 29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진행된 3차 실연 심의 결과, 배정된 총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3건의 작품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실연심의회는 작품의 예술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계획의 공공성(10%)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심의는 예술위 전담심의관을 포함한 전문 심의위원 5인의 평가와 관객평가단 점수(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분간의 실연과 이어진 15분의 인터뷰를 통해 창작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관객과의 접점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실연심의회에 참가한 다섯 단체 모두 한정된 조건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작품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작품은 기획 단계에서 기대했던 주제 의식을 충분히 구현해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주목할 점은 다섯 작품 중 네 작품이 '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음악적 표현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음악 고유의 청각적 경험을 충분히 탐구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음악공연의 확장을 위한 타 매체와의 협업은 유의미하지만, 음악 자체의 가능성을 고유한 음악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실연심의회에서는 창작산실 사업 취지의 적합성 및 신작으로서의 기준 충족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정 작품이 완성도와 밀도 면에서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었더라도, 기존 작업과 유사한 미학적 어법이나 창작 형태를 반복하는 것을 '신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작가 고유의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업이 창작자를 지원하는 '창작주체'가 아닌 '창작산실'임을 고려할 때, 이전 작품의 재구성이나 변주가 아닌 독립된 '신작'으로서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창작산실은 수준 높은 공연 결과물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실연심의회는 최종 무대를 가늠할 수 있는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실험에 머물 경우 최종 공연의 구조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관객에게 제공될 구체적인 경험 설계가 부족할 경우 작품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에서 선정된 세 작품은 예술의 동시대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와 음악의 새로운 실험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구성과 익숙한 형식으로 도전성이 다소 약하게 드러난 측면도 있었으나, 실연자들의 높은 수행 능력이 작품의 밀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감정의 잔향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했으나, 지역 기반의 소재가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연출상의 세심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음악의 육체성과 물질성을 회복하려는 시도 역시 실제 공연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구성과 연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 분야에 배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지 못한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단체들의 집행예산계획을 검토한 결과 무대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충분히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실연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례비가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지원작 선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음악계에서 수행되어 온 일반적인 연주회나 작품발표회 형식을 탈피하여 '공연예술로서의 음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악적 상상을 공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초기 구상부터 실제 무대화에 이르기까지 창작자와 함께 공연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작 과정을 조율하는 기획자 및 프로듀서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악적 경험에 춤이나 영상 등 시각적 요소를 결합하더라도, '이 음악이 왜 오늘 이곳에서 경험되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작산실 음악 분야가 동시대 음악의 역할을 자문하고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안하는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기획 의도와 실제 무대 사이의 난점들을 세심하게 살펴 본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게도 이번 결과가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 취지와 간극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향후 다른 무대에서 좋은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차례의 심의 과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단체와 실연심의에 참여해주신 관객평가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심의위원 일동